

# 자본론 1장 상품 Section 1 간략한 정리

인터내셔널

※ 자본론이 읽기에 상당히 괴랄한 난이도이기도 하고 혹시나 보시는 분 중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앞으로 시간이 나면 챗터별로 간단한 요약본을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나름 정리도 할 겸 쓰는 것이니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읽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본론 1장 상품 Section 1 상품의 두 요인: 사용가치와 가치

맑스 자본론의 핵심은 "어떻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이 작동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맑스의 연구는 근본적으로 변증법에 기반을 둔 연구방법을 채택하며, 내적인 긴장(internal tension)이 시간의 흐름(time evolution)을 통해 다음 단계의 조화로움(a next stage of unitarity)으로 이행되고 다시 긴장이 해소되는 과정의 반복이 바로 맑스의 주장을 확장시키는 핵심적인 추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본론 전체를 관통하는 맑스의 주장은 "A와 B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는 변증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품 챗터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자. 다만 필자는 영문판을 읽기에 한글판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 공식적인 국문 번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The wealth of those societies in which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prevails, presents itself as "an immense accumulation of commodities," its unit being a single commodity. Our investigation must therefore begin with the analysis of a commodity."**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는 상품의 방대한 집약으로 나타나며, 부의 기본단위는 단일한 상품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결국 상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왜 상품을 연구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 파트라고 볼 수 있다. 맑스는 상품(commodity)을 "something which meets human wants or needs"로 정의한다.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면 그것은 상품이라는 이야기이다. 또한 맑스는 상품을 외부에 존재하는 물체라고 정의하는데, 이것은 결국 상품이 인간 신체로부터 필요하면 언제든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노동가치이론을 주장한 존 로크의 경우, 자산이 곧 내 신체의 일부인 노동이 투영된 결과이므로 곧 자산도 신체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존 로크의 이론이 부르주아 헌법에서 사유재산권이 천부인권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을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있을까? 수만 개, 수십만 개, 어쩌면 수백만 개의 상품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상품들은 모두 각기 다른 품질과 다른 양적 척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란 무엇일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욕구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재미를 욕구로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욕구를 가질 수 있다. 개인에 따라 그 형태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맑스는 이런 구체적인 논의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다. 아마 이런 건 경영학의 마케팅 이론에서나 공부할 문제일 것이고, 맑스는 그런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맑스가 오직 관심있는 것은 자본론의 다음 문장을 통해 하나의 일반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다.

**"The utility of a thing makes it a use value."**

"상품의 유용성(혹은 효용)은 사용가치를 만들어낸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개념이 나온다. "사용가치(use-value)". 이것이 어떻게 개개인에게 유용성을 가지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맑스는 이렇게 개별적인 상품들이 각각 갖고 있는 물건의 유용성(usefulness)을 추상화(abstraction)하

고 있다.

즉 맑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 또는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산 → 사용가치(use-value)인 것이다.

그럼 다음 파트, 14페이지 최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자.

**“In the form of society we are about to consider, they are, in addition, the material depositories of exchange value.”**

“우리가 고려하려고 하는 사회의 형태에서 상품은 교환가치의 중요한 저장고이다.“

이걸 다시 독일어 1판의 글으로 읽어 보겠다.

**“In the form of society which we are going to examine, they form the substantial bearers at the very same time of exchange-value.”**

“우리가 검토할 사회의 형태에서, 상품은 교환가치와 바로 동시에 실질적인 베어러를 형성한다.”

베어러는 뭔가를 전달, 운반해 준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품의 또다른 정의가 도출된다.

상품 → something을 전달하는 역할(a bearer of something)

뭔가 something이라고 하면 막연한 것 같으니 예를 하나 떠올려보자.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물건은 오직 사용가치를 갖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사회의 형태에서(in the form of society), 상품은 교환과정(exchange process)를 통해 무언가(something)를 전달해 주는 의미를 가진다. 시카고 상업거래소나 런던 증권거래소, 혹은 코스피 시장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양의 거래를 생각해 보자. 즉 날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거래(=교환과정)를 통해 상품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혹은 현재에서 미래로 이 무언가(something)를 전달하고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something이 대체 무엇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14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자.

**“Hence exchange value appears to be something accidental and purely relative, and consequently in intrinsic value, i.e., an exchange value that is inseparably connected with, inherent in commodities, seems a contradiction in terms.”**

“따라서 교환가치는 우발적이며 순수하게 상대적인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내재가치, 즉 상품에 내재된 교환가치는 용어상의 모순으로 생각된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뭘 소리인가 싶다. 글 좀 쉽게 쓰쇼.. 암튼 다음 문단을 읽어보자.

**“Therefore, first: the valid exchange values of a given commodity express something equal; secondly, exchange value, generally, is the only the mode of expression, the phenomenal form, of something contained in it, yet distinguishable from it.”**

“그러므로, 첫째, 주어진 상품의 유효한 교환 가치는 어떤 것을 동등하게 표현한다. 둘째, 교환 가치는 일반적으로, 그 속에 포함된 어떤 것(something)의 유일한 표현 양식이자 경이로운 형태이며, 그러나 그것과는 구별될 수 있는 것이다.”

교환가치(exchange value)는 교환되기 위해 동등성을 가진 것(equality)로 표현되어야 하고, 상품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형태(form)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품과는 구별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품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추론해 낼 수 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읽어도 계속 이야기를 안해준다. 맑스할배 똑똑한 할배지만 원래 글 더럽게 쓴다. 그래서 그 속에 포함된 something이 뭔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의 예시를 들어보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해부하면 물론 개별 부품은 내다팔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판에 붙어 있는 켈컴칩의 플라스틱 일부분을 조금 잘라내서 내다팔면? 그게 거래될 수 있을까?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면 어렵도 없다. 즉 일반적으로 시장을 통해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품이거나, 혹은 규격화된 제품이거나, 이래야 하는 것이다.

한번 상품을 의미하는 영단어 commodity를 재미로 어근분석해 보자. com + mod + ity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com은 함께, together이라는 의미이고 mod는 measure의 의미에 가깝다. 이걸 합치면 commensurable이 되는데 이걸 단위가 같다는 뜻이다. 수학에서는 통약성이라고도 한다. 즉 측정 척도가 규격화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걸 다른 말로 교환 가능하다(exchangeable)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동등성을 가진 것(equality)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했던 것은 무슨 뜻일까? 교환과정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옥수수랑 원유를 교환한다고 가정해 보자. 옥수수 시세가 아마 부셸당 7달러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브렌트유는 아마 60~70달러 사이를 왔다갔다 하니까, 대충 70달러라고 치자.

그러면 “100 bushels of corn = 10 barrels of Brent crude oil”

요 등식이 성립하게 된다. 이게 바로 Equality이다. something equal으로 표현되는 것.

여기서 맑스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진다.

“님들아 그래서 상품은 규격화된 거죠? 근데 그 규격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이게 아까부터 찾아 왔던 “something”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데 핵심적인 질문이 된다.

어쨌든 상품은 교환되기 때문에 내 것에서 다른 사람 것으로 소외(alienation)된다고 볼 수 있다(맑스가 말하는 소외는 양도랑 비슷한 의미라고 봐도 된다). 그런데 어쨌든 이 교환 과정에서 something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something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무슨 원자나 분자, 이런 거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 뭐냐구? 자본론을 계속 읽어보겠다.

**“As use values, commodities are, above all, of different qualities, but as exchange values they are merely different quantities, and consequently do not contain an atom of use value.”**

“사용가치로는 상품은 무엇보다도 각기 다른 품질을 가지고 있지만 교환가치로써 그것들은 단지 서로 다른 양에 불과하며, 결과적으로 사용가치의 원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품의 유용성 혹은 효용에 근거해 교환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다음을 계속해서 읽어보겠다.

**“If then we leave out of consideration the use value of commodities, they have only one common property left, that of being products of labor.”**

“만일 우리가 상품의 사용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상품들에는 다만 노동의 산물일 뿐이라는 하나의 공통점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렇다. 노동의 산물(products of labor)이라는 것이 맑스가 이야기하는 모든 상품들의 공통점이다. 이제야 속이 좀 뻥 뚫리는 듯하다. 그런데 사실,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나 모두 노동의 결과물이고 산물인 것은 동일하다. 과연 무슨 노동을 맑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there is nothing left but what is common to them all; all are reduced to one and the same sort of labor, human labor in the abstract.”**

“상품들에 있어 다음의 공통점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 공통점이라 함은, 모든 상품들이 종래는 하나로써 축소되고, 같은 종류의 노동, 즉 추상적 노동이 된다는 것이다.”

맑스 할배, 그래서 추상적 노동이 뭔데요? 원래 쉽게 설명 안해주는 할배다 보니 우리가 알아서 답을 찾아야 한다. 설명은 더럽게 어렵게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편이 보다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예를 들어, VLCC 1척을 건조하는 데 일반적으로 18개월이 소요된다고 하자. 그런데 우리 회사의 기술력으로서는 아무리 단축해도 5년씩이나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우기는 거다. “님들 아 제가 이 배 5년 걸려서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더 비싸게 쳐주시죠?” 근데 이렇게 말해봤자 아무도 안 듣는다. 어차피 시장에 내다 파는 건 결과물으로써 보는 거지 얼마나 건조기간이 걸렸는가까지 생각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편 건조가 완료된 VLCC 1척과 기상청이 사용하는 슈퍼컴퓨터 2대가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진다고 가정하자. 배를 만드는 것과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것은 투입시키는 노동이 명백히 다른 형태를 가진다. 그러나 어쨌든 교환가치가 동일하므로 교환은 성립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노동자가 배를 만드는 노동을 했건, 아니면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노동을 했건, 아니면 엄청 열심히 일했건, 조금 태만하게 일했건, 노동의 형태나 강도와 무관한, “일반적인 인간 노동”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풀어 말하면, 아까 VLCC선의 예시에서 VLCC를 만드는 데 우리 회사가 개인적으로 기술력이 부족해 5년이 걸리고, 다른 회사는 기술력이 좋아서 1년이 걸리고,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회사들이 18개월 걸려서 배를 만들어 낸다면,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노동보다는 일반화될 수 있는 노동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자.

**“Let us now consider the residue of each of these products; it consists of the same unsubstantial reality in each, a mere congelation of homogenous human labor, of labor power extended without regard to the mode of its expenditure. All that these things now tell us is, that human labor power has been expended in their production, that human labor is embodied in them. When looked at as crystals of this social substance, common to them all, they are - values.”**

“이제 각 제품들의 잔여물을 고려해보자. 그것은 각각의 동일한 실체 없는 현실로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순전히 동질적인 인간 노동의 집합체이며, 그것의 지출 양식에 관계없이 확장된 노동력의 결합일 따름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인간의 노동력은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었고, 인간의 노동력은 상품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사회적 물질의 결정체라는 시선에서 조망했을 때, 상품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가치이다.”

이제 드디어 가치의 개념이 등장한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다. 한번 정리해 보자.

- 사용가치(use-value) : 인간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시키는 자산(=유용성)
- 교환가치(exchange-value) : 등식(equality)으로 표현되는 양적인 교환과정에서의 가치
- 가치(value) : ?

아직 가치의 정의는 모른다. 그러나 살펴보자. 15페이지 하단부에 맑스는 이런 말을 했다.

**“Exchange value is the only form in which the value of commodities can manifest itself or be expressed.”**

“교환가치는 상품의 가치가 스스로 나타나거나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이다.”

맑스할배 이게 뭔 소리래? 결국 가치는 교환가치에 의해서만 스스로 표현된다는 소리다. 즉 교환가치가 가치를 대표하는 것(exchange value = a representation of value)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가치가 곧 대상화된 노동이므로 교환가치가 곧 노동을 표현하는 것(exchange value = a representation of labor)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한번 백화점이나 재래시장에 가보자. 가방을 사려고 해도 가격표가 있고, 화장품을 사려고 해도 가격표가 있고, 목살을 사려고 해도 가격표가 있고, 맥주를 사려고 해도 가격표가 붙어 있다. 거기 붙어 있는 가격들, 즉 교환가치(exchange value)가 노동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도구인 것이다. 즉 맑스는 “가격을 통해 노동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내다(represent, express..)라는 표현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나타내다라는 것은 to be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를 테면 음악가나 화가 같은 예술가들에게 드는 아이디어나 느낌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음악가들은 그것을 음악으로, 화가들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즉 음악가나 화가의 아이디어나 느낌이 대상이나 본질이라면, 그것을 직접 느끼거나 만져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느낌이 투영된 예술 작품이 바로 아이디어의 representation이라는 것이다.

암튼 이 다음에 16페이지에서 맑스는 이런 말을 한다.

**“A use value, or useful article, therefore, has value only because human labor in the abstract has been embodied or materialized in it.”**

“따라서 사용가치 또는 유용한 물건은 추상적 노동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노동의 과정(process)이 물건(thing)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다. 추상적인 과정이 어떻게 구체화 되는 거지? 하나의 예시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는 걸 생각해 보면 된다. 학교에서 교육받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을 때 나오는 결과물들은 뭐 시험 점수, 논문, 에세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된 것(embodied th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노동의 과정에 대입하면 된다.

또한 맑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노동은 물건에 투입된 노동시간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맑스는 시간이 곧 돈이라는 본질을 가치라는 개념에 잘 투영해 설명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그 근처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capitalist mode of production)의 법칙이 깔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맑스의 말을 살펴보자.

**“The total labor power of society, which is embodied in the sum total of the values of all commodities produced by that society, counts here as one homogeneous mass of human labor power, composed though it be of innumerable individual units. Each of these units is the same as any other, so far as it has the character of the average labor power of society, and takes effect as such; that is, so far as it requires for producing a commodity, no more time than is needed on an average, no more than is socially necessary.”**

“그 사회가 생산한 모든 상품 가치의 총합으로서 구체화되는 사회의 총 노동력은, 비록 수많은 개별 단위로 구성되지만 종래는 인간 노동력의 단일한 동질적 덩어리로 간주된다. 이들 각각 단위는 사회가 갖고 있는 평균 노동력의 특성을 보유한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하는 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한, 평균적으로 필요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맑스는 특정한 개인의 노동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평균적인”,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집중한다. 아까 이야기한 바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특정한 지역, 시, 군, 혹은 국가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란 것은 근본적으로 세계시장(World market) 단위의 사회를 의미한다. 오늘날 글로벌리즘이 팽배한 자본주의 세계를 의미하는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맑스는 자본론 이곳저곳에서 미래를 다소간 꿰뚫어본 혜안을 발휘했고, 여기서도 그러한 혜안은 유감없이 들어맞는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맑스의 다음 문장을 보자.

**“The labor time socially necessary is that required to produce an article under the normal conditions of production, and with the average degree of skill and intensity prevalent at the time.”**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은 정상적인 생산조건에서, 그리고 당시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기술 수준과 강도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여기서 가치의 정의가 나온다.

■ 가치(value) :=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

사실 이걸 정의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Law or hypothesis로 봐야 할지 조금 의문이기는 하다. 비슷한 맥락으로 Newton의 제2법칙인  $F=ma$ 에서도 비슷한 생각이 든다. 법칙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Force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정의이기 때문. 아무튼 가치의 정의인 동시에 가치의 본질(essence)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맑스는 왜 이렇게 가치,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정립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것일까? 당시의 사회적 맥락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맑스에 앞서서 국제경제학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지는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노동시간을 이미 가치로 정립한 적이 있었고, 따라서 맑스는 본인의 주장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 개념을 보다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리카도와의 차이점은 여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socially necessary)”이라는 제약조건을 추가했다는 점에 있다. 이 제약조건의 정의는 맑스의 텍스트를 참조하자면 아래와 같다.

★ 사회적으로 필요한(socially necessary) : 정상적인 생산조건에서, 그리고 당시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기술 수준과 강도에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즉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거론하며 “내 노동력은 안 그런데?” 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다. “어떤 회사는 R&D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노동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동시간이 가치를 결정합니까? 맑스 이론에 중대한 결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견 타당해 보인다고 느낄 수 있겠으나, 이렇게 질문한다면 맑스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술을 지재권으로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글로벌 이코노미에서는 기술이 확산되는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 100년 동안 기술 독점하고 그런 게 잘 없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리 열심히 방어한다 한들 어느 시점에서는 기술이 확산되어 다른 회사들도 노동시간 단축의 이점을 누리는 시기가 온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일종의 균형 상태(equilibrium)가 곧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맑스는 기술의 개발이나 발전, 생산성 향상이 무의미하다거나 무용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물론 그것들은 유효한 요소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SNLT는 동시대 내에서, 즉 보편성이 통용되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다루어지는 것이지 시대배경이 다른 18세기와 20세기의 생산성 차이를 들이밀면서 이론의 모순을 지적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요컨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의 변화도 가치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시대의 변화라는 time evolution 축에서 유효한 것이지 동시대 안에서는 유효한 반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맑스가 상품의 Section 1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주장의 집합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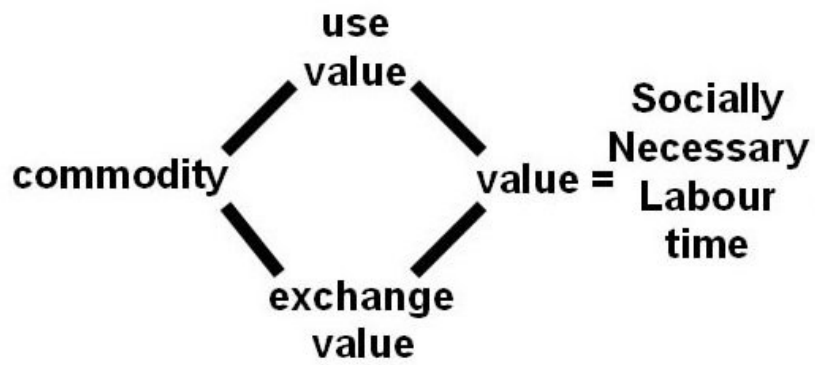
**“A thing can be a use value, without having value. This is the case whenever its utility to man is not due to labor. Such are air, virgin soil, natural meadows, etc. A thing can be useful, and the product of human labor, without being a commodity. Whoever directly satisfies his wants with the produce of his own labor, creates, indeed, use values, but not commodities. In order to produce the latter, he must not only produce use values, but use values for others, social use values. Lastly nothing can have value, without being an object of utility. If the thing is useless, so is the labor contained in it; the labor does not count as labor, and therefore creates no value.”**

“물건은 가치가 없어도 사용가치가 될 수 있다. 인간에게 물건의 효용이 노동 때문이 아닐 때는 언제나 그렇다. 공기, 미개간지, 천연 목초지 등이 그 예시이다. 물건은 상품이 되지 않아도 여전히 유용하고, 인간의 노동의 산물이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노동의 생산물로 자신의 욕구를 직접 충족시키는 사람은,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상품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가치, 즉 사회적 사용가치도 생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효용 또는 유용성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그 물건이 쓸모없다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노동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그 노동은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건 무인도에서건 내가 필요에 의해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쓰면 그건 상품이 아니란 소리다. 그러나 상품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그 물건은 사용가치를 갖는다. 다만, 상품이란 반드시 시장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사용가치를 지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또한 앞서 말했듯 가치란 곧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속성들을 감안했을 때, 맑스의 상품 설명은 역시나 변증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세 개의 문장들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품은 사용가치(use-value)와 교환가치(exchange-value)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2. 교환가치는 가치(value)를 나타내는 도구이며, 가치는 곧 상품에 투입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Socially Necessary Labor Time, SNLT)을 의미한다.
3. 가치는 실제적 유용성을 의미하는 사용가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를 보다 간편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자본론 1장 Section 1에 대한 정리글을 마쳤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Section 2,3,...에 대해서도 글을 써 보겠습니다.